

해외전시회 소식

ITMA 2023, 한국 업체 신청 증가

2023년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섬유기계전시회 (ITMA 2023 /2023.06.08 ~ 06.14)에 신청하는 우리나라 업체가 전회 (ITMA 2019)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부터 해외전시회가 대부분 중단되어 수출업체들의 시장 개척 및 수출 영업에 지장이 많았던 만큼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시 수출 시장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참가 신청을 한 업체는 일성기계공업(주), (주)삼화기계, (주)디지아이, (주)이화에스알씨, 일신기계, (주)니텍스제침, 부광테크, (주)구일기계공업, (주)월드드로, 매일기계(주) 등 13개사이다. 참가 신청은 전시회 홈페이지 (<https://itma.com>)에서 개별 업체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마감일은 2022년 3월 15일이다. ITMA 2019는 신청 마감일 수개월 전에 예약 신청이 완료된 바 있다.



무역 및 시장정보

섬유기계 수·출입 통계 (2021년 1월 ~4월)

		수 출	수 입
금액 (천\$)		642,184	390,235
국가별 (천\$)	중국	29,086	215,682
	미국	342,597	5,922
	일본	5,836	11,436
	베트남	47,008	82,381
	유럽(계)	40,383	29,874

인도의 섬유기계 시장 동향

(가) 인도 섬유산업

- 인도의 섬유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900억 달러, 연평균 12% 성장하여 2025년에는 2,200억 달러 예상
- 인도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섬유·의류 수출국이며 중국 못지않은 원자재 및 물류 인프라를 보유
- 섬유산업은 인도 전체 산업 생산의 13%이며 종사자는 약 5,000만명 규모로 추정

(나) 인도 섬유기계 산업

- 인도의 섬유기계 시장 규모는 2019년 17억 7,000만 달러에서 2024년에는 25억 7,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인도 산업부는 섬유·의류 시장 확대, 정부의 신섬유 정책, 해외 투자 유입 등에 힘입어 섬유기계 시장의 성장을 전망

(다) 인도 섬유기계 수입 동향

- 2019년 기준 섬유기계 수입 규모는 2억 8,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6.7%감소, 2017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로 이는 인도 자체의 기술 향상 및 국내 생산 확대에 기인
- 인도 섬유기계 수입 동향 (방적기, 섬유준비기)

(단위 : 천달러)

순 위 (19년기준)	국 가	2017년	2019년
1	중 국	84,556	75,492
2	일 본	90,481	74,141
3	독 일	127,588	43,101
4	이탈리아	47,022	19,178
5	스 위 스	9,956	14,651
6	한 국	2,682	11,978
7	벨 기 예	1,481	6,914
8	네덜란드	69	6,346

<출처 : KOTRA 인도 첸나이 무역관>

❖ 한국섬유기계협회 소식

■ 한국섬유기계협회 상근이사에 조성환 상무 선임

한국섬유기계협회 이사회는 신임 상무이사에 조성환 상무를 선임하여 7월 1일부로 임용한다. 조성환 상무는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한국섬유마케팅센터 등에서 근무한 기획 및 마케팅 분야 전문가이다. 일본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어 일본 마케팅 및 교류협력 분야 업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임 문승옥 전무이사는 섬유기계 업계를 위한 장기간의 근무를 마치고 퇴임한다.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소식

■ 2021년 섬유산업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협약식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은 지난 5월 31일 연구원에서 「21년 섬유산업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본 사업은 제조로봇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로봇도입 실증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사업 책임부서인 기계로봇연구센터 관계자를 비롯한 수요처 9개 기업과 공급처 6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협약식에 참가한 15개 기업 중 수요(섬유)기업은 삼한염공, 시마, 대방, 대영합섬, 삼우텍스텍, 삼덕섬유, 유진한일합섬, 유일코퍼레이션, 코리아마스크이고, 공급(로봇 SI)기업은 포원시스템, 대동정공, 하이젠모터, 테크원코리아, 제팩, 로엔이다. 연구원에서는 2019년부터 섬유산업 표준공정모델을 개발하여 2023년까지 19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로봇산업과 섬유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섬유산업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협약식

<출처 : 기계로봇연구센터 이재용 센터장>

■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2차전지 분리막 연속 제조장비 구축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CNF, cellulose nano fiber)는 일반적으로 폭이 100nm 이하로 중횡비 50이상의 고결정성 구조를 갖는 섬유질 소재로, 약 10여년전부터 국내에도 소개되어 다양한 산업분야에 소재활용이 검토되고 있다. 북미, 유럽, 일본 등지에서 활발히 기술사업화가 검토되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는 국가 전략소재로 선정되어 다양한 기술사업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구원에서도 이러한 미래소재에 대한 다양한 기술사업화 검토를 추진 중이며, 특히 2차전지 분리막으로의 기술사업화에 관심을 두고 CNF를 이용한 분리막 연속 제조설비 구축을 추진 중이다. 기존 분리막은 열 변형에 대한 막 형태 안정성이 취약하지만 CNF로 제조된 분리막은 동등 이상의 셀 단위 전지 성능을 구현하면서 열 형태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여 2차전지 화재 발생 등 안전성 이슈에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커패시터 분리막으로 상용화가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 에어필터 및 생분해성 서퍼팅 부직포로도 활용 가능하여 다양한 소재 기술사업화가 기대된다. 그렇지만 국내에 CNF 전용 롤 제조 장비가 없고 기존 Wet-laid 장비의 대체 활용도 불가능하여, 전지 제조업체 수요 기반의 국내 유일 CNF 롤 제조 장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차전지 분리막 롤 제품 예시
 및 CNF 전용 분리막 연속제조설비 예시

<출처 : 바이오융합연구센터 정용일 센터장>